

동시통역에 적합한 한국어 발화 속도 연구

최 문 선
(이화여대)

1. 서론

동시통역을 어렵게 하는 가장 주요한 요소 중 하나는 연사의 발화 속도이다. 굳이 통역 연구 결과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동시통역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쉽게 공감하고 수긍할 것이다. 원문의 발화 속도가 너무 느려도, 너무 빨라도 통역사는 어려움을 경험하며 통역 결과물 품질도 영향을 받는다. 특히 원문의 속도가 빨라지면 통역사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상대적으로 편안하게 느껴지는 속도에서는 들은 내용의 확정과 말할 내용의 확정이라는 두 가지 결정만 내리면 되는 반면 속도가 증가하면 ‘전략 선택’이라는 의사결정이 추가되기 때문이다(Gerver 1969/2002). 반대로 일정 속도 이하의 느린 발화 속도 역시 통역사에게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다. 통상 동시통역사는 2-3초 전에 들은 말을 기억했다가 통역을 하게 되는데(이미경 2011: 168) 원문이 느려질수록 들은 내용을 단기기억에 상대적으로 오래 저장해야 하며 과정에서 기억 부패(decay)가 일어나기 쉽기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통역사 본인 발화의 휴지

(pause)를 조절하기도 힘들다.

이러한 점에서 동시통역에 ‘적합한’ 속도가 있다고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진술한 바와 같이 통역사가 속도에 의해 겪는 어려움을 고려할 때 동시통역에 적합한 속도란 ‘통역 전략에 대한 의사결정이 추가되지 않으면서 단기기억 부패의 위험이 적은 속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속도에서 통역사들은 통역하기 편하다거나 이상적인 속도라는 느낌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너무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은, 동시통역에 적합한 발화 속도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 통역학에서는 분당 100~120단어의 속도가 가장 적절하다는 기준이 통용되어 오고 있다(Seleskovitch 1978 등). 그러나 이를 한국어 원문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한국어는 단어를 정의하는데 상이한 이론들이 있어 어느 이론을 따르냐에 따라 한국어 단어 수에 차이가 발생한다(이태형 2002: 118). 따라서 단어를 기반으로 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 이에 더하여 한국어가 모국어인 통역사에게 한국어가 원문일 경우 AB¹⁾ 방향의 통역을 하는 상황이 되는데, 이처럼 AB 방향의 동시통역일 경우 BA 방향의 동시통역에 비해 속도에 대한 느낌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한국어를 원문으로 하는 동시통역을 수행할 때 적합한 속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근거가 요구된다.

동시통역에 적합한 한국어 발화 속도를 연구하는 것은 통역 연구와 통역 교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너무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은 적절한 수준의 속도를 확인하는 것은 향후 한국의 통역 연구의 신뢰성, 타당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통역 연구에서 연구자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통역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적절히 통제하는 것이다. 통역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수적으로도 많을 뿐 아니라 다양한 요소가 동시에 작용하여 상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연구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의 조건을 최대한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예를 들어 통역 전략이나 규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면 연구의

1) A언어는 통역사의 모국어를 뜻하며, B언어는 통역사의 모국어가 아니면서 통역이 이루어지는 언어를 지칭한다(AIIC 2015).

목적에 맞추어 원문의 속도가 일정 수준으로 통제되어야 할 것이다. 원문의 속도에 따라 규범, 전략의 유무나 종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속도를 통제된 상태에서 통역 실험이 이루어지고 결과가 해석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연구 결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포괄적인 일반적 이론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통역 교육을 위해서도 원문의 속도라는 요소는 반드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현재 동시통역 강의는 대부분 텍스트 주제를 심화하거나 텍스트 복잡성을 높여 난이도를 심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²⁾ 이는 원문 속도는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점을 전제하는 것이나, 어느 정도의 속도가 적절한지에 대해 명시적인 정보를 접하기 어렵다. 이처럼 동시통역 교수 시 속도를 적절히 감안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학습자에게 동시통역을 가르칠 때는 어느 정도 ‘느린 속도’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암묵적인 믿음이다. 동시통역을 처음 접하는 학습자들에게는 동시통역의 수행 원리조차 생소한데 이들에게 속도를 높임으로써 추가적인 부담을 엮을 경우 학습 효과를 얻을 수 있겠는가라는 의구심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교육 초기 단계에서는 정당한 주장일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한정된 교육 기간으로 인한 제약 사항이기도 하다. 그러나 원문의 속도를 감안하지 않을 경우 매우 빠르거나 매우 느린 다양한 속도에 노출되는 실제 통역 현장에서 수행되는 과제와는 동떨어진 과제만 수행하다가 졸업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실무와 긴밀히 연결되는 통역 학습의 특성을 고려할 때 중요한 학습 자료의 실제성(authenticity)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다양한 속도의 음성자료로 동시통역 학습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이때 보다 체계적인 교수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동시통역의 원문 속도에 따른 통역 과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속도가 통역 수행

2) 예를 들어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석사과정의 교과목개요(<http://gsit.hufs.ac.kr/> 참조)에 따르면 동시통역 I에서는 ‘비전문적인 주제와 경제 분야의 연설’을 다루며 동시통역 II에서는 ‘난이도 높은 연설로 이행’하여 ‘복잡한 과학기술 분야의 연설’, ‘정치적 연설’을 다루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이화여대 통번역대학원 교과과정(<http://gsti.ewha.ac.kr/> 참조)에 수록된 동시통역 I에 대한 소개를 보면 ‘짧고 간단한 발화’에서 ‘점차 길고 복잡한 발화로’ 이행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통역평가 시 속도에 따라 평가기준도 달리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동시통역에 적합한 한국어 발화 속도를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통역 연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통역 실험에서 한국어 원문 속도 변수를 통제하기 위한 참고자료가 됨으로써 해당 연구의 신뢰성, 타당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통역 교육 현장에서 동시통역 학습자료인 통역 원문의 제시 속도를 조절하고 학습 목표에 따른 적절한 속도를 설정하기 위한 기준점을 제시하고, 통역 평가 시 속도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기 위한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선행 연구

본 연구는 한국어 원문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한국어 발화 속도와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하영(2001)에 따르면 한국 드라마와 라디오 발화는 분당 319음절(5.31음절/초)의 속도로 이루어지는 반면 한국어 교재에서는 분당 209~232음절로 발화되었다. 최은지(2007)는 한국인의 자유 대화를 분석한 결과 발화 속도가 분당 419음절(6.9음절/초)임이 확인되었으나 한국어 교재에서 사용되는 발화 자료는 자유 대화 속도의 60~80%에 그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윤미선(2004)의 연구에서 한국어 화자의 읽기 과제 수행 결과 측정된 평균 발화 속도는 분당 368.4음절(6.14음절/초)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한국어 발화 속도 연구로부터 한국어 실제 발화의 표준 속도를 대략 분당 300~400음절(spm) 정도로 추정할 수 있겠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어 교재에서는 이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통역 교육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동시통역에서의 원문 속도를 연구한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들은 원문의 속도를 독립 변인으로 삼은 연구들이지만 연구의 목적은 상이하였다. 발화 속도 연구의 선구자격인 거버(Gerver 1969/2002)의 연구에서는 원문의 발화 속도에 따라 동시통역과 재도잉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보고자 하였고, 이를 통해 동시통역 수행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후 슐레진저

(Shlesinger 2003)는 발화 속도가 통역사의 작업기억에 미치는 영향을, 피오(Pio 2003)는 발화 속도가 통역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고, 원종화(Won 2011)는 발화 속도가 통역 품질과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원종화(2011)의 연구를 제외한 다른 연구들은 모두 해외 연구로서 원문의 언어는 한국어가 아니었다. 동시통역에서의 원문 속도를 연구한 선행연구에서 원문 언어, 통역 방향, 적용된 원문 속도(분당단어수 및 분당음절수)를 비교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 선행연구에서 적용된 원문 속도

연구	원문 언어	통역 방향	원문 속도 (분당 단어수)	원문 속도 (분당 음절수)
Gerver (1969/2002)	불어 (550단어, UN 연설문)	BA	95, 112, 120, 142, 164 (5개 조건)	N/A
Shlesinger (2003)	영어 (각 약 1,700단어, 총 6개 텍스트)	BA	120, 140 (2개 조건)	N/A
Pio (2003)	독어 (슈뢰더 총리의 연설문 2개. 느린 연설 길이는 8.29분, 빠른 연설 길이는 6.44분)	BA	108, 145 (2개 조건)	196, 302
Won (2011)	영어 (오바마 한미FTA 체결, 약 420단어마다 속도 변환)	BA	112.4, 134, 175 (3개 조건)	N/A
	한국어 (이명박 신년 연설문, 약 800음절마다 속도 변환)	AB	N/A	214, 274, 339 (3개 조건)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원종화(2011)의 연구를 제외하면 모두 BA 방향의 연구이고 불어, 영어, 독어 등의 언어를 원문으로 사용하였으며 대부분 분당 단어

수를 속도의 단위로 삼았다. 이는 한국어를 원문으로 하는 AB 방향의 동시통역에서 원문 속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성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연구의 내용을 살펴보면 동시통역에서 원문의 발화 속도를 독립 변인으로 삼은 선행연구들은 연구의 초점이 달랐으나 중복되거나 연관되는 연구 결과가 발견되었다. 원문 속도 관련 연구에서 도출된 결론을 모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문의 발화 속도가 증가할 때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생략(omission)이 증가한다는 점이다(Gerver 1969/2002, Pio 2003, Won 2011). 피오(2003)의 연구에서 원문 발화 속도가 느린 속도(108wpm 혹은 196spm)에서 빠른 속도(145wpm 혹은 310spm)로 바뀌자 통역문에서 생략이 약 2배 증가하였다. 속도 상승 시 커버리지(coverage)가 저하된다는 원종화(2011)의 결론도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속도와 함께 생략이 증가하는 이유와 관련하여 슐레진저(2003)는 이것이 단순히 작업기억의 한계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통역사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기인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통역 교육 단계에서 학습하거나 실무에서 습득한 규범의 영향을 받아 원문의 핵심 메시지 전달에 부수적이라고 여겨지는 요소를 생략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원문의 발화 속도라는 변수를 차치하고라도 동시통역은 인간이 수행할 수 있는 가장 복잡한 정보처리 과제 중 하나로서 통역 결과에서의 생략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으며(이태형 2001) 실제 통역 현장에서 전문통역사들이 활발히 구사하는 전략으로 관찰된다(이미경 2013).

둘째, 원문의 속도와 EVS(ear-voice span 혹은 청성시차)³⁾와의 관계이다. 거버(1969/2002)는 원문 속도가 높아짐에 따라 EVS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피오(2003)의 연구에서는 원문 속도와 뚜렷한 상관관계가 드러나지 않았으며 결국 통역사별로 접근법이 다른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첫 번째로 언급한 생략의 증가는 여러 관련 연구를 통해 공통적으로 확인되나, 속도와 EVS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로 보인다.

셋째, 전문통역사에 비해 통역학습자가 속도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Pio 2003). 피오(2003)의 연구 결과 원문 속도가 빨라지자 전문통역사에 비해 학습자 그룹에서 의미와 유창성 면에서 오류가 더 많이 증가하였다. 즉 통역학습자

3) 연사의 문장 시작과 해당 부분의 통역 시작 간의 시간차를 의미한다(이태형 2013: 135).

가 속도에 대한 대응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이는 학습 기간 중 다양한 발화 속도에 노출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통역 방향에 따라 통역 속도로 인한 어려움의 양상이 달라진다(Won 2011). 앞서 논한 세 가지 연구 결론들은 모두 통역 결과물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결과인 반면, 어려움의 양상은 통역 과정의 정성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통역 속도를 달리할 때 통역사가 겪는 어려움은 통역 방향별로 질적인 차이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원종화(2011)는 발화 속도 연구 중 유일하게 양방향을 모두 고찰하였는데, 대응어 선택(selecting and finding the right equivalents)이라는 어려움이 AB 방향에서는 가장 느린 속도에서 가장 자주 언급된 반면 BA 방향에서는 중간 속도에서 가장 많이 호소되었다. 이처럼 통역 속도가 통역 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통역 방향에 따라 달라진다면 발화 속도를 다루는 연구도 통역 방향별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3. 연구 설계

‘동시통역에 적합한 한국어 발화 속도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모색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도출하였다.

(1) 원문 속도 증가에 따라 통역에서 다음의 각 항목이 증가하는가? 증가한다면 특히 어느 구간에서 증가폭이 크게 나타나는가?

- 생략
- 비유창성
- 휴지(unfilled pause)
- EVS

(2) 통역사는 어느 구간에서 원문 속도 증가를 인지하는가?

(3) 통역사는 원문 속도 변화로 인해 통역 수행에 어떠한 영향을 받았다고 느끼는가?

(4) 통역사가 통역하기에 가장 적합한 속도로 느끼는 속도는 무엇인가?

(1)번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문의 발화 속도를 달리할 때 동시통역 결과물에서 나타나는 생략⁴⁾, 비유창성⁵⁾, 휴지, EVS를 측정할 정량적 자료가 필요하였다. (2)~(4)의 연구문제는 통역사의 주관적인 느낌과 생각을 묻는 질문이므로 연구 참여자들이 해당 질문에 대해 답변한 정성적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원문 속도에 변화를 주는 조건 하에서 한국어에서 영어로의 동시통역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동시통역을 수행한 참여자들에게 통역 수행 과정에서 겪은 경험을 묻고 이에 대한 구술 응답을 획득하였다.

3.1. 통역 원문

3.1.1. 텍스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속도를 조절하면서 그에 따른 통역 수행 및 결과를 관찰해야 했는데, 효과적인 속도 조절을 위해서 글로 쓰여진 텍스트를 낭독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주제가 친숙한지 여부가 통역 프로세싱에 필요한 노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라는 점(Shlesinger 2003: 41)을 감안하여 특별한 배경지식이나 전문지식을 요하지 않으며 전문용어를 포함하지 않는 일반적인 주제를 다룬 연설문을 택하였다. 그 결과 기획재정부 차관이 한 포럼의 축사로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연설문을 본 연구의 원문으로 선정하였다. 주제는 경제 일반, 원문 분량은 약 1,610자였다.

3.1.2. 속도

본 연구의 독립 변인인 원문의 발화 속도를 설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차적으로 현재 통역대학원의 동시통역 수업에서 적용되고 있는 원

-
- 4) 생략이란 원문에는 있으나 통역문에는 포함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5) 일반적으로 비유창성이란 통역사가 발화 중 발화 속도를 늦추거나 발화의 연속성을 단절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부분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통칭한다(최문선 2015: 180). 본고에서는 음성적으로 발현되는 비유창성 표지인 간투사, 반복, 수정 사례를 묶어 ‘비유창성’ 항목으로 분석하였으며, 대표적 비유창성 특징인 ‘휴지(unfilled pause)’는 별도의 항목으로 분리하였다(본고의 4.1.2.와 4.1.3. 참조).

문의 발화 속도를 조사하였다. 조사 시점은 동시통역을 처음 배우는 1학기 초였으므로 여기에서 적용되는 속도는 동시통역의 원문 발화 속도로서는 가장 느린 속도가 될 것으로 보았다. 통역대학원에서 이루어진 한영 동시통역의 한 수업에서 낭독된 한국어 원문 2개의 속도를 조사한 결과 각각 188spm, 217spm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발화 속도 관련 선행연구에서 적용된 속도를 조사하였다. 연구에 따라 속도 조건의 수가 2개~5개로 상이하였는데(앞의 표1 참조), 본 연구에서는 속도에 따른 변화를 보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개의 다른 속도를 설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선행연구(김하영 2001, 윤미선 2004, 최은지 2007, Pio 2003, Shlesinger 2003, Won 2011)에서 적용한 속도를 spm 단위로 비교하였다(그림 1 참조).

그림 1 관련연구의 발화속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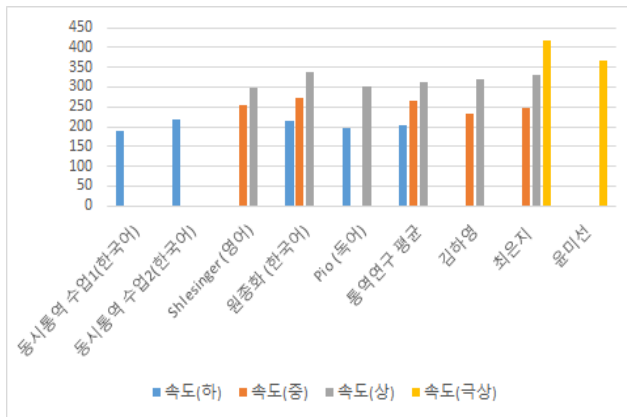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 선행연구의 발화 속도 비교 결과 매우 빠른 속도라고 판단되는 속도(극상)를 제외하고 나머지 속도가 상, 중, 하의 카테고리로 분류될 수 있었다. 가장 느린 속도 평균이 약 200spm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기서부터 35%씩 체계적으로 증가시킨 속도인 270spm, 340spm을 추가로 적용할 속도로 설정하였다. 설정된 3개 속도는 관련 통역 연구에 사용된 원문 속도 상, 중, 하 그룹의 평균치에 근접하였다. 이렇게 하여 200spm을 속도(하), 270spm을 속도(중), 340spm을 속도(상)으로 설정하였다. 목표 속도를 오차 없이 달성

하기 위해서는 녹음된 음성 자료를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위적으로 조작해야 하나 이 경우 노이즈나 음성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Derwing & Munro 2001: 328). 이는 동시통역 시 상당한 장애 요인이 되며 속도 이외의 추가적인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연구자가 직접 여러 번 텍스트를 낭독하면서 최대한 목표 속도에 근접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들리는 음성자료를 만드는 방법을 택하였다. 원문을 총 4개의 꼭지로 나누었고 첫 번째 꼭지(292음절)는 사전 연습용으로 준비하였으며, 두 번째 꼭지부터 앞서 정한 속도를 순서대로 적용하였다. 각 꼭지의 길이는 두 번째 꼭지가 431음절, 세 번째 꼭지가 452음절, 네 번째 꼭지가 428음절로서 거의 동일한 길이로 분절하였다. 두 번째 꼭지를 속도(하)(200spm), 세 번째 꼭지를 속도(중)(270spm), 네 번째 꼭지를 속도(상)(340spm)에 맞추어 낭독, 녹음하였다. 낭독 결과 측정된 실제 속도는 각각 202, 263, 338spm이었다.

3.1.3. 휴지

휴지는 발화 속도와 맞물려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문장 간 휴지는 통역 프로세싱 부하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들에서는 원문의 휴지를 어떻게 통제하였는지에 대해 기술하지 않고 있다. 원문의 휴지를 보고한 피오(2003)의 연구에서는 독어 원문의 속도를 두 수준으로 설정하여 실험하였는데 느린 속도에서는 3초 이상의 휴지가 14개, 빠른 속도에서는 2개가 포함되어 있다고 밝혀 휴지가 통제되지 못한 상황에서 연구가 이루어져 이 점이 오염변수로 작용했을 수도 있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장 간 휴지를 일정하게 유지함으로써 휴지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이에 세 가지 다른 속도로 낭독한 원문에서 문장 간 휴지를 1.5~2.0초로 일정하게 유지하였다. 음성편집기(Audacity)를 사용하여 모든 문장간 휴지가 정해진 범위 내에 들어오도록 줄이거나 늘임으로써 휴지를 통제하였다.

3.2. 참여자

본 연구의 동시통역 실험에는 5명의 전문통역사가 참여하였다. 전원 여성이었으며, 연령은 32세~45세, 통역경력은 5년~14년이었다. 참여자별 정보는 다음

의 표2와 같다.

〈표 2〉 참여자 정보

참여자	성별	연령	통역경력
P1	여	39	14년
P2	여	45	14년
P3	여	34	11년
P4	여	32	8년
P5	여	39	5년

3.3. 연구 절차

5명의 참여자와 일대일로 만나 동시통역 실험을 진행하였다. 연구자의 컴퓨터로 원문을 재생하였고, 이어폰으로 원문을 들으면서 통역하는 참여자의 발화를 다시 컴퓨터와 디지털녹음기로 녹음하였다. 원종화(2011)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원문 속도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반응을 자연스럽게 관찰할 수 있도록, 또한 실험 후 참여자에게 속도 변화를 인지하였는지 여부를 질문하기 위하여 원문의 속도가 변동된다는 점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험을 실시하였다. 각 참여자는 동시통역 직후 원문을 보면서 통역 과정에 대해 기억나는 점을 회상구술하였으며, 원문의 발화 속도와 관련하여 연구자가 준비한 질문에 대해 자유롭게 답변하였다. 결과 분석을 위하여 통역결과물과 참여자의 구술 응답을 전사하였다.

4. 결과 및 분석

4.1. 원문 속도에 따른 통역결과물 특성

원문의 발화 속도를 달리할 때 동시통역의 과정과 결과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 관찰하기 위하여 속도에 따른 통역결과물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원문과 통역문 대조 후 참여자별, 속도별 생략 빈도를 계수하였고, 통역문 전사내

용을 기초로 간투사⁶⁾, 수정, 반복 등 비유창성 횟수를 계수하였으며, 통역결과물 음성파일 상에서 휴지 길이와 EVS를 측정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수, 측정된 데이터를 기초로 연구문제(1), 즉 ‘원문 속도 증가에 따라 통역에서 생략, 비유창성, 휴지, EVS가 각각 증가하는가? 증가한다면 특히 어느 구간에서 증가폭이 크게 나타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통역에서 나타나는 생략, 비유창성, 휴지, EVS가 속도 변화 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수행하였고,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한 구간을 확인하기 위해 사후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4.1.1. 생략

선행연구에서 원문 속도 변화 시 가장 두드러졌던 현상인 생략 추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원문 대비 후 통역문을 정확한 대응(strict correspondence), 풀어말하기(paraphrasing), 오역(error), 생략(ommission)의 네 가지로 분류하여 빈도 분석하였다⁷⁾. 이를 위하여 먼저 속도(하), (중), (상)에 해당하는 원문 텍스트를 문장 이하의 단위로 분절된 결과 속도(하)는 총39개, (중)은 41개, (하)는 42개의 항목으로 나뉘었다. 다음으로 원문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통역문의 부분을 매칭한 후 정확한 대응, 풀어말하기, 오역, 생략 중 하나의 값을 부여하였다. 다음의 <표 3>은 생략(원문에 밑줄로 표시, 통역문에는 나타나지 않음)으로 계수한 사례의 예시이다.

<표 3> 생략 사례(예시)

참여자	원문	통역문
P1	미국 포춘 지에 따르면 세계 100대 기업 중에서 <u>지난 20년간</u> 순위를 그대로 유지한 기업은 30%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According to the Fortune magazine, out of 100 companies around the world only 30% of the companies maintained their rankings as the

6) 간투사(filler)란 ‘음’, ‘어’, ‘아’와 같이 머뭇거림을 채우기 위한 말로서 발성휴지(filled pause)라고도 부른다(최문선 2015: 181).

7) 힐드(Hild 2011)가 적용한 기준에 따라 통역결과물을 정확한 원문 대응(strict correspondence), 풀어 말하기(paraphrasing), 오역(error), 생략(ommission)의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Hild 2011: 258).

		Fortune 100 companies around the world this year.
P4	세월호, 메르스 등 경제에 예기치 못한 충격도 있었고	we also had the Mers and other, uh, factors that affected our economy.

원문 대비 생략의 비중을 산출하기 위하여 각각의 속도에서 참여자별로 위와 같은 생략 항목 수를 합산한 후 이를 총 항목수로 나누었다. 그 결과 각 속도별로 원문 대비 생략의 비중(%)은 표3과 같이 나타났다.

〈표 4〉 생략

구분	속도 하	속도 중	속도 상	합계 ⁸⁾
평균	11.82	19.50	38.12	23.15
표준편차	2.28	11.28	5.06	13.26

(단위: 원문 의미단위 중 생략된 항목의 퍼센티지(%))

참여자들은 속도(하)의 조건에서 원문 대비 약 12%를 생략하였고, 속도(중)에서는 약 20%, 그리고 속도(상)에서는 약 38%를 생략한 것으로 나타났다. 속도에 따라 통역에서 나타나는 생략 비중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분산분석⁹⁾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었다($p=0.012$). 이에 사후분석¹⁰⁾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속도(하)-(상), 속도(중)-(상) 사이에 유의미한 증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속도(하)-(중) 간에는 생략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던 반면, 속도(하)-(중)($p=0.008$), 속도(중)-(상)($p=0.016$) 간에는 생략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이다. 다시 말해 한국어 원문 속도가 270spm까지 올라갈 때 원문 대비 생략의 비율은 약 20% 이내로서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으나, 270spm에서 340spm으로 증가할 때 원문 대

- 8) 표4, 6, 7, 8의 ‘합계’에 사전 연습용 꼭지에 대한 통역 결과는 포함되지 않음을 밝혀 둔다.
- 9) 일원분산분석을 시행하였으나 등분산 가정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비모수 분산분석인 크루스칼-왈리스(Kruskal-Wallis) 검정을 시행하였다.
- 10) 비모수 분산분석의 사후분석을 위하여 속도(하)-(중), (하)-(상), (중)-(상)에 대하여 각각 만-휘트니(Mann-Whitney) 검정을 실시하였다.

비 생략의 비율이 거의 40%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4.1.2. 비유창성

통역 시 원문 속도 증가는 통역사의 인지 부담을 증가시키고 이는 통역결과물의 비유창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보아 간투사, 반복, 수정 등과 같은 비유창성 사례를 계수하였다. 다음의 <표 5>의 통역문 중 밑줄 부분은 간투사, 반복, 수정으로 간주한 사례의 예시이다.

<표 5> 비유창성 사례(예시)

참여자	통역문	구분
P5	Steve <u>uh</u> jobs, after he had returned to Apple, <u>uh</u> , simplified the product line, that was the first thing he did.	간투사
P4	...companies that have managed to <u>retain to retain</u> their ranks only amounted to forty percent.	반복
P3	Next, <u>decisions have to be made, strategic decisions have to be made</u> on what to focus on and what to let go of.	수정

참여자들의 통역에서 발견된 비유창성(간투사, 반복, 수정) 사례는 평균적으로 속도(하)에서 7.6회, 속도(중)에서 10회, 속도(상)에서 9.8회 발견되었다. 이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비유창성

구분	속도 하	속도 중	속도 상	합계
평균	7.6	10	9.8	9.13
표준편차	4.34	4.00	4.09	4.00

(단위: 사례수)

평균 수치상으로는 속도(하)에서 (중)으로 상승 시 비유창성이 증가한 듯하였으나, 분산분석 결과 유의미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원문 속도가 증가한다고 비유창성이 증가한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다만 위의 데이터

에 따르면 전문통역사가 약 400음절 정도의 한국어 원문을 통역했을 때 약 9회 정도의 비유창성이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주므로, 향후 학습자 집단과의 비교라든지 통역방향을 달리했을 때의 경우와 비교할 때 활용 가능한 기준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4.1.3. 휴지

원문 속도 증가에 따라 입력물에 대한 프로세싱 부하로 인하여 발화가 제한되어 휴지가 증가할 것으로 보아 통역에서 나타난 휴지 길이를 측정하였다¹¹⁾.

〈표 7〉 휴지

구분	속도 하	속도 중	속도 상	합계
평균	18.18	9.40	7.85	11.81
표준편차	9.41	3.64	7.15	6.73

(단위: 초)

통역 결과 평균 휴지 길이는 속도(하)에서 약 18초이었다가 속도(중)에서는 약 9초로 절반가량 줄어들었고, 속도(상)에서는 약간 더 줄어든 약 8초를 기록하였다. 즉, 연구문제 설정 시 원문 속도 증가에 따라 휴지도 증가할 것으로 보았던 가설과는 반대로 오히려 원문 속도 증가와 함께 휴지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비유창성이나 뒤에 기술할 EVS 결과와는 달리 한 방향(감소)으로의 일관된 추세이므로 주목된다. 이 결과만을 근거로 할 때 원문 속도가 증가할수록 휴지는 감소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속도(중)-(상)에서는 감소폭이 미미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에 이르면 휴지도 더 이상 감소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측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분산분석 결과 원문 속도가 증가할 때 휴지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1) 원문의 문장 간 휴지가 1.5~2.0초로 조정된 점을 감안하여 통역문에서도 1.5초 이상 되는 휴지를 기준으로 휴지 길이를 측정하였다.

4.1.4. EVS

속도가 빨라질 경우 원문을 ‘따라가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EVS 증가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선행연구에서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는 등 뚜렷한 경향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 다시 고찰하고자 속도 변화에 따른 EVS 추이를 관찰하였다. 동시통역의 원문과 통역문 간의 EVS를 측정하기 위하여 원문의 문장별로 번호를 매기고, 해당 문장이 시작되는 지점과 그에 대한 통역이 시작되는 지점을 확인한 후 두 지점 간의 시간을 측정하였다.

〈표 8〉 EVS

구분	속도 하	속도 중	속도 상	합계
평균	3.35	4.18	3.73	3.75
표준편차	0.51	0.59	0.37	0.58

(단위: 초)

통역의 평균 EVS는 속도(하)에서 약 3.4초, 속도(중)에서 약 4.2초, 속도(상)에서 약 3.7초로 나타났다. 이는 분산분석 결과 유의미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속도 증가에 따라 EVS가 차이를 보인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이는 속도에 따라 EVS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던 피오(2003)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EVS는 통역 속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그런데 EVS 평균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속도(하)에서 (중)으로 갈 때 EVS가 늘어났다가, 속도(상)으로 가면서 다시 좁혀지는 경향이 발견된다. 특히 참여자 P1, P2, P3의 경우 이러한 추이가 두드러졌다. 일례로 참여자 P1의 경우를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9〉 참여자 P1의 EVS 측정치

P1	속도(하)	속도(중)	속도(상)
1	1.83	2.41	2.95
2	1.74	4.00	6.34
3	1.99	2.64	2.95

4	3.66	3.21	6.08
5	3.66	3.71	2.74
6	4.10	3.38	1.13
7	4.21	3.00	-
8	2.93	4.14	-
9	4.35	5.26	-
10	-	7.70	-
11	-	8.75	-
평균	3.16	4.38	3.70

* 단위: 초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참여자 P1의 EVS는 속도(하)에서는 평균 3.16초였다가 속도(중)에서는 약 40% 증가한 4.38초를 기록했다. 그러다가 속도(상)에서는 다시 3.70초로 하락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EVS 경향은 통역사 개인차에 기인한다는 피오(2003)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특히 흥미로운 점은 속도(상)에서의 EVS 경향이다. 2.95초에서 6.34초로 늘어났다가 다시 2.95초로 낮아지고, 다시 6.08초로 높아지는 등 ‘널뛰기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여기서 통역사는 EVS를 ‘관리’하기 위해 모종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추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속도가 늘어나는 EVS를 방지할 경우 통역 실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전략적 조치를 취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앞서 서론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동시통역에 적합한 속도를 단기기억의 부패가 최소이면서 추가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는 속도라고 할 때, 참여자 P1에게 본 연구의 속도(상)은 통역하기 적합한 속도가 아닐 것이다. EVS를 관리하기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4.1.에서 기술한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에서 원문 속도 증가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던 4개 지표, 즉 생략, 비유창성, 휴지, EVS 중 비유창성, 휴지, EVS는 속도 증가와 뚜렷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유일하게 생략만이 원문의 발화 속도가 (중)(270spm)에서 (상)(340spm)으로 증가할 때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2. 원문 속도에 따른 통역사의 주관적 경험

통역 실험을 마친 후 참여자는 통역 과정 전체에 대해 원문을 보면서 회상

구술을 실시하였고, 원문 속도와 관련한 세 가지 질문에 대해 자유롭게 답하였다. 이 세 가지 질문은 본고 3장의 앞머리에서 밝힌 연구문제(2)~(4)에 해당한다. 각 질문별 참여자 답변은 다음과 같다.

4.2.1. 통역사는 어느 구간에서 원문 속도 증가를 인지하는가?

동시통역 후 원문 속도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참여자들은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처음에서 두 번째는 속도가 변한다고 느끼지 못했다. 마지막에서 속도 변화를 감지했다 (P1)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넘어갈 때는 [속도 변화를] 거의 못느꼈다” (P2)

“매 번 속도 변화를 느꼈다” (P3)

“세 번째 꼭지 때. 당황해서 세 번째 꼭지는 잘 기억이 안나요... 두 번째로 넘어갈 때는 속도가 변하는 느낌은 못받았고(P4)

“세 번째 꼭지 가서 느꼈다.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갈 때는 속도는 괜찮았는데 굉장히 내용이 빠빠해. 처리하기 힘들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다.” (P5)

위의 답변에서 알 수 있듯이 매 구간에서 속도 변화를 인지하였다고 응답한 참여자 P3을 제외한 모든 참여자들이 속도(하)와 (중)은 거의 비슷한 속도로 체감하였다. 그러나 속도(중)에서 (상)으로 변화할 때 실제 속도가 빨라진다고 느꼈다. 속도(하)-(중)의 구간 내에서는 속도 변화를 감지하지 못했다는 이러한 응답은 참여자들이 속도(하)-(중)을 하나의 속도 구간으로 인지하였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4.2.2. 통역사는 원문 속도 변화로 인해 통역 수행에 어떠한 영향을 받았다고 느끼는가?

앞서 4.2.1.에서 참여자 전원이 속도(상)으로 변화한 특정 시점에서 원문 속도 변화를 인지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속도 변화로 인해 통역 수행이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속도가 빨라지면 우선순위 모드로 바뀌는 것 같아요 나는 다 못한다. 그러니까 확 우선순위를 해야겠다. 그런데 이 사람의 우선순위할 수 있는 말들은 뭐. 했어요 법 제정, 구조개혁... 근데 개혁이라는 말이 갑자기 생각이 안나는거예요 너무 빨리하니까...”(P1)

“일단 나열 버리고 메인 메시지만 확실하게 전달하자고 결심한다. 들으면서도 기억하려고 노력을 안하는거다. 이걸 버려야겠다 선택을 하는거다 별로 기억하려고 노력을 안하는거다. 4개 분야의 reform이 있다는 것만 전해야겠다 이거[나열] 다 잡으면 뒤에 것 놓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다” (P2)

“전략을 딱 잡지는 못했고, 그냥 포기하는 게 많았다 (중략) 나는 뭔가 전략을 해야겠다고 생각은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P3)

“듣고 하려는거 보다, 예측같은거 안하고 그냥 들리는대로 뱉으려고 했던 것 같다. 빨라서 못들은 단어 생각하거나 대응어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버려야 했고 좀 당황한 게 오래갔다 그래서 뭔가 전략을 세웠어야 되는데 뚜렷한 전략이 세워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P4)

“[두 번째 꼭지까지는] 그냥 잘 따라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세 번째 꼭지]를 요약하면서 가야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P5)

원문의 속도가 빨라진다고 느꼈을 때 참여자 전원이 어떠한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대부분 이를 실행에 옮긴 것을 볼 수 있다. 그 전략의 구체적인 내용에서 참여자간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다. 즉, 보다 중요도가 높고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발화하고자 하는 전략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참여자 P1은 ‘우선순위’, 참여자 P2는 ‘버려야겠다는 선택’이고 표현하였고, 참여자 P5는 ‘요약’이라고 표현하였다. 이를 종합해 보면 우선순위, 즉 중요도에 따라 부수적인 항목을 생략하고 남는 항목을 가지고 메시지를 구성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속도 변화를 감지한 시점인 속도(중)-(상)의 구간에서 이러한 특정 전략의 선택과 실행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한 점은 속도(하)-(중)에서의 통역 과정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핵심내용 전달을 위해 생략하는 항목의 구체적인 예를 참여자 P2의 응답에서 엿볼 수 있다. 참여자 P2는 나열되는 항목을 다 통역하다가 뒤에 나오는 항목을 놓칠 위험을 피하기 위해 나열의 구체적인 항목은 ‘버린다’고 응답하였다. 실제로 속도(상)으로 낭독한 꼭지의 원문에서 ‘아울러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동, 교육, 금융, 공공 4대 분야 구조개혁도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라는 부분에 대한 통역이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in order to fundamentally strengthen our economic foundation, we will do the four reforms, we will continue to do the four reforms." (P2)

즉 통역문에서는 '노동, 교육, 금융, 공공'이라는 구체적인 나열은 생략하고 이를 아우르는 '4대 분야'만을 표현하였다. 그런데 그 결과 수정(위의 밑줄)이라는 비유창성이 발생한 것은 생략 전략을 선택하고 구사하는 데 추가적인 인지 자원이 요구되어 도착어 표현에 가용한 인지 자원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슐레진저(2003)의 연구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4개가 나열되어 있는 명사구의 경우 수식어를 일체 생략하거나 한, 두 개 정도까지만 표현하는 경향이 나타났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즉, 동시통역사들은 효과적 메시지 전달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나열되는 구체적 항목을 생략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사례로서 속도(상)의 도입부 원문과 참여자 P5의 통역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원문에 줄을 그은 부분은 통역문에서 생략된 부분이다.

*"그리고 기업들이 전략적인 판단을 통해 차별적인 사업채권과 구조조정
정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 제정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산
업간 융복합을 가로막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여 미래 먹거
리가 될 수 있는 신산업 창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
니다." (원문)*

*"Also through strategic uh decisions, uh the companies have to go
through restructuring process and the government has to uh lay out some
policies to that end. Also convergence is another very important uh item
and the government will continue to strive to find new growth engine for
the future. " (통역문)*

앞서 P5는 빨라진 원문 속도에 대응하기 위한 방책으로 '요약을 하면서 가야 되겠다'고 판단했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통역한 결과물을 분석하면, 1) '자

발적인’, ‘활발하게’라는 수식어구를 생략하였고, 2) ‘사업재판’, ‘떡거리가 될 수 있는’을 생략하였는데, 이는 각각 뒤이어 나오는 ‘구조조정’, ‘신산업’과 의미적 중복성이 있는 항목임을 알 수 있으며, 3) ‘융복합’을 둘러싼 앞, 뒤 항목들을 대거 생략하되 ‘융복합’이라는 아이디어를 살리기 위해 ‘...is another important item’이라는 설명으로 나머지 내용을 대체한 것을 볼 수 있다. 1)은 소위 발화의 핵심내용을 담은 상위명제(superordinate proposition)는 살리고 상세한 부가 설명을 덧붙이는 기능을 하는 하위명제(subordinate proposition)는 생략(Tommola & Helevä 1998: 185)한 사례이며, 2)는 일반적으로 기억의 부담이나 시간적 압박이라는 제약을 극복하고 통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으로서 중복적인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생략하는 기법(Tommola & Helevä 1998: 184)이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의 경우 전체 문장을 누락하기 보다는 하나의 키워드를 추출하여 이를 전달하는 기법으로 풀이할 수 있다.

4.2.3. 통역사가 통역하기에 가장 적합한 속도로 느끼는 속도는 무엇인가?

통역하기에 가장 적합한 속도를 묻는 질문에 참여자들의 응답은 다양하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중간 것이 통역하기 제일 적합했어요 처음 것은 너무 느렸어요 기다리는 게 힘들어요 중간 속도가 제일 적당해요” (P1)

“첫 번째는 너무 많이 느리다, 계속 이렇게 할 건가? 이런식이면 너무 쉽지 않냐 싶었다.” (P3)

“그나마 두 번째, 첫 번째 것은 너무 느렸어요 느려서 어쩔 수 없이 끊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첫 번째 것은 동시 처음 배울 때? 아니면 연세가 있으신 연사일 때 두 번째가 전형적인 동시의 느낌이었어요” (P4)

위의 응답처럼 속도(중)가 통역하기에 가장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참여자 P1, P4). 한편 속도(하)는 너무 느렸기 때문에 ‘기다려야’ 한다든지(참여자 P1), ‘어쩔 수 없이 끊어가야’ 한다(참여자 P4)는 등의 이유로 통역하기에 부담이 있었고, 일면 통역 현장에서 만나기 힘든 비현실적인 속도라는 점을 암시하였다.

통역하기 적합한지 여부와 무관하게 속도(상)이 실제 통역 현장의 원문 속도에 더 가깝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리고 [빠른 속도보다] 더 빠른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도 현장에서는 이게 [연설문]이 있으니까. 빠른 속도도 일할 때 자주 만나긴 하지만, 이렇게 dense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읽는 것하고 그냥 말하는 것하고의 차이..”(P1)

“세 번째 속도가 혼란 것 같다.” (P3)

이러한 응답에 기초할 때 통역원문의 실제성(authenticity)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속도(상)(340spm)의 수준이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참여자 P1의 응답을 보면 단순히 속도만이 아니라 정보밀도라는 텍스트적 특성, 연설문이 문서로 미리 제공되는지 여부와 같은 현장의 조건 역시 함께 고려되어야 실제성을 보장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실제적인 통역 환경을 조성한 후에 속도의 영향을 보는 것이 더 정확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더하여 특정 원문 속도가 통역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떠나 청중 입장에서 원문 속도의 영향을 고려한 응답도 있었다.

“청중 입장에서는 빠른 속도가 [통역을] 듣기 더 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속도가 느리면 통역사가 다 풀려고 한다. 하지만 속도가 빨라지면 핵심만 취해서 전달하려고 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P5)

참여자 P5의 응답은 단순히 ‘빠른 속도에서 통역할 때 청중이 듣기 편한 통역이 된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속도 변화에 따라 통역 수행의 형태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진술로 보아야 할 것이다. 속도가 느릴 경우 ‘다 풀려고 한다’는 말은 한국어-영어 통역 시 도착어 표현의 발화량이 늘어나고 더 복잡해진다는 의미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청중의 입장에서 핵심 파악을 위해 그만큼 더 많은 노력을 들여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반대로 속도가 빠를 경우는 앞서 4.2.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통역사가 전달할 정보를 ‘취사선택’하여 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을 생략함으로써 핵심 메시지를 ‘추출’해 주므로 청

중 입장에서는 별다른 분석 노력 없이 훨씬 편안하게 들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4.2.에서 원문 속도 변화에 따라 통역사들이 주관적으로 경험한 바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역사들은 속도(하)-(중)의 구간에서는 속도 변화를 체감하지 못했으며, 속도(상)에 가서야 속도 변화를 인지하였다. 둘째, 속도 변화를 인지한 속도(상)에서 통역사들은 속도(하),(중)에서와는 다른 방식으로 통역을 수행하였다. 즉, 속도(상)에서는 생략과 요약 등 구체적인 전략을 선택, 실행하였다. 셋째, 통역사들은 속도(하)는 비현실적으로 느린 속도이고 대체로 속도(중)이 통역하기에 적합한 속도라는데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속도(상)이 가장 통역 현장에서 제시되는 속도와 가깝다는 지적도 있었다. 다시 말해 속도(중)의 경우 너무 느리거나 빨라서 가중되는 어려움은 없으나 원문의 실제성을 고려한다면 속도(중)은 ‘이상적인’ 속도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동시통역에 적합한 한국어 발화 속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200spm, 270spm, 340spm의 세 가지 속도 조건 하에서 한영 통역사 5인이 한국어-영어 동시통역을 수행하였다. 동시통역 실험 결과 원문 속도 증가에 따라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던 생략, 비유창성, 휴지, EVS 중 생략만이 원문 속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200spm, 270spm에서는 원문 대비 생략의 비중이 약 10~20% 정도로 비슷했으나, 속도가 340spm으로 상승하자 약 40%까지 생략이 증가하였다.

동시통역 실험 후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원문 속도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응답하게 한 결과 통역사들은 200spm과 270spm 간의 속도 차이는 거의 체감하지 못하였으나, 270spm에서 340spm으로 빨라지자 속도가 증가했다는 것을 인지하였다고 답했다. 또한 340spm에서는 보다 느린 속도 구간과는 다른 방식으로 통역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했다. 즉, 부수적인 항목을 ‘생략’하고 우선 순위가 높은 핵심 항목을 중심으로 ‘요약’한다는 구체적인 통역 전략을 선택, 실행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통역하기에 적합한 속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본

연구에서 중간 속도였던 270spm이라는 응답이 지배적이었으나 실제 통역 현장에서 통역하는 원문의 속도는 340spm에 가깝다고 답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종합할 때 본 연구에서 답하고자 하였던 문제, 즉 동시통역에 적합한 한국어 발화 속도는 200spm에서 270spm에 이르는 구간이라는 잠정적인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결론을 내리는 근거는 첫째, 200spm과 270spm에서 나타나는 생략의 정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그 수준도 20%이하로 낮았다. 둘째, 통역사들이 이 두 속도 간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이는 통역사들이 이 두 속도를 하나의 동질적 구간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셋째, 340spm으로 속도가 높아지자 생략이 크게 증가하면서 통역사의 전략 선택이 추가되는 양상을 볼 수 있었다. 본고의 서론에서 정의한 바처럼 ‘동시통역에 적합한 속도’를 ‘통역 전략에 대한 의사결정이 추가되지 않으면서 단기 기억 부패의 위험이 적은 속도’라고 할 때 340spm에서 나타나는 통역의 양상은 이에 부합하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는 한국어를 원문으로 하는 동시통역 연구에서 속도 변수를 통제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통역 교육에 사용하는 한국어 원문 속도를 설정하기 위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동시통역 시 듣고 바로 통역할 수 있는 능력을 학습하거나 평가하기 위해서는 원문의 속도를 200~270spm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으나, 통역 현장의 실제성을 고려하고 통역 전략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학습, 평가하기 위해서는 원문 속도가 340spm 수준이 되어야 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더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된 경험데이터는 연사의 발화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근거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는다. 참여자들의 진술에 비추어볼 때 본고에서 통역하기 적합한 속도로 제시한 속도는 ‘이상적인’ 속도이며 실제 통역 현장에서의 속도와는 격차가 있다는 점이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동시통역 시 대부분 ‘이상적이지 않은’ 속도로 제시되는 원문을 통역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실제 통역 원문 속도에 가장 근접하다고 평가된 340spm에서 생략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을 볼 때 빠른 속도로 제시되는 원문의 동시통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효과적으로 생략 전략이 실행되어야 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향후 원문 속도가 달라질 때 생

략 등 각종 통역 전략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한다면 속도에 따른 통역 전략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세 가지 속도로 제시된 텍스트들의 구체적인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어 이것이 오염변수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향후 텍스트 선정 시 보다 엄밀한 통제를 통해 보다 신뢰성 높은 결과가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참여자 수가 극히 제한적이었다는 점은 통계분석을 비롯한 본 연구 결과의 해석이 잠정적인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고에서 제시한 결론과 데이터들이 한국어 원문을 사용한 동시통역 시 원문 속도와 통역문 간의 관계, 원문 속도에 따른 통역 수행 시의 주관적 경험 등 속도와 관련된 다양한 측면을 조명해 주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

참고문헌

- 윤미선 (2004) 「청각장애인과 건청인의 말속도와 씬 특성 비교」, 『언어청각장애연구』 9(1): 15-29.
- 이미경 (2011) 「수행기억과 동시통역과정에서의 정보처리의 차이」, 『번역학연구』 12(1): 167-189.
- 이미경 (2013) 「동시통역 과정에서의 언어방향성과 생략-한영 vs. 영한 동시통역 데이터 비교」, 『번역학연구』 14(1): 155-181.
- 이태형 (2001) 「영한 동시통역의 생략 오류 연구」, 『번역학연구』 2(1): 7-27.
- 이태형 (2002) 「동시통역의 시간적 양상 컴퓨터 분석 도구」, 『국제회의 통역과 번역』 4(2): 113-133.
- 이태형 (2013) 「영한 동시통역 연구의 시간적 변수」, 『통역과 번역』 15(1): 125-144.
- 최문선 (2015) 「순차통역과 동시통역 학습자의 비유창성 양상 분석」, 『통역과 번역』 17(1): 177-207.
- 최은지 (2007) 「한국어 듣기 교재 내 음성 자료 속도의 실제성」, 『한국어교육』 18(1): 401-427.
- AIIC (2015) 'AIIC announces changes to language classification procedure',

- aiic.net*, 22 March. Accessed 16 June 2016 at <<http://aiic.net/p/7149>>.
- Derwing, Tracey & Munro, Murray J. (2001) 'What Speaking Rates Do Non-native Listeners Prefer?', *Applied Linguistics* 22(3): 324-337.
- Gerver, David (1969/2002) 'The Effects of Source Language Presentation Rate on the Performance of Simultaneous Conference Interpreters', in Franz Pöchhacker and Miriam Shlesinger (eds) *The Interpreting Studies Reader*, London: Routledge, 52-67.
- Hild, Adelina (2011) 'Effects of Linguistic Complexity on Expert Processing During Simultaneous Interpreting', in Cecilia Alvstad, Adelina Hild and Elisabet Tiselius (eds) *Methods and Strategies of Process Research: Integrative Approaches in Translation Studies*,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 Co., 249-267.
- Pio, Sonia (2003) 'The Relation between ST Delivery Rate and Quality in Simultaneous Interpretation', *The Interpreters' Newsletter* 12: 69-100.
- Seleskovitch, Danica (1978) 'Language and Cognition', David Gerver and H. Wallace Sinaiko (eds) *Language Interpretation and Communication*, New York: Plenum Press, 333-341.
- Shlesinger, Miriam (2003) 'Effect of Presentation Rate on Working Memory in Simultaneous Interpreting', *The Interpreters' Newsletter* 12: 37-49.
- Tommola, Jorma & Helevä, Marketta (1998) 'Language Direction and Source Text Complexity: Effects on Trainee Performance in Simultaneous Interpreting', in Lynne Bowker, Michael Cronin, Dorothy Kenny and Jennifer Pearson (eds) *Unity in Diversity?: Current Trends in Translation Studies*, Whiltshire; St. Jerome, 177-186.
- Won, Jong-Hwa. (2011) 'Effects of Input Rates on the Performance of Novice Simultaneous Interpreters',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13(1): 37-57.

[Abstract]

A Study on the Appropriateness of Presentation Rates for Simultaneous Interpreting of Korean Speech

Choi, Moonsun

(Ewha Womans University)

A presentation rate being ‘appropriate’ for simultaneous interpreting may refer to one that spares the interpreter additional efforts for decision-making on top of comprehension and rendition of the message. In interpreting studies, it is known that the rate of 100-120 wpm is optimal for simultaneous interpreting. However, whether this statement may also be applicable for Korean speech has not been empirically tested. This study aims to explore and identify the range of presentation rates appropriate for simultaneous interpreting from Korean to English with empirical data. Five professional interpreters performed simultaneous interpreting from Korean to English under three rate conditions of 200, 270 and 340 spm, without being informed of the rate change. After completing the interpreting task, the participants were asked to orally answer the questions regarding their perception of the presentation rates and their effects on interpreting performance. Analysis of the interpreting products in terms of omission, disfluency, pause and EVS revealed that omission increased significantly when the presentation rate rose from 270 to 340 spm while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between 200 and 270 spm. Analysis of oral responses showed that first, the participants perceived a marked change in the presentation rate only when the rate increased to 340 spm, which indicates that the range between 200 to 270 spm was being perceived as a single, homogeneous rate; second, the participants stated that they made a decision to select specific interpreting strategies, i.e. omission and summarization, in order

to cope with the increasing rate when it went up to 340 spm. Taken together,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appropriate range of presentation rate for Korean to English simultaneous interpreting may be found somewhere between 200~270 spm where the interpreters did not have additional burden of selecting and implementing specific interpreting strategies while omission stayed at a relatively low level. However, as was pointed out by some participants, the more 'authentic' rate was close to 340 spm, which was set as the highest speed in this study.

▶ Key Words: simultaneous interpreting, Korean-to-English, presentation rate, syllables per minute(spm), omission

최문선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통역학과 조교수

choimoonsun@ewha.ac.kr

관심분야: 통역교육, 통역평가, 통역과정, 통역전략, 텍스트분석

논문투고일: 2016년 4월 28일

심사완료일: 2016년 6월 9일

게재확정일: 2016년 6월 15일